출판인에게 띄우는 편지

책의 꿈과 이미지를 팔 때

이중한
서울신문 논설위원·출판평론가

참으로 오랫동안 희망사항으로만 있어 왔던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계획에 최초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2005년까지 1천9백35억원을 들여 파주 출판단지를 조성키로 한 것이다. 사업비 규모와 목표연도까지 마련됐으므로 이제는 더 막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출판문화단지의 꿈과 도전은 땅이 마련됐다고 해서 동시에 가시화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 꿈을 출발시켰던 수년 전과는 출판 그 자신의 산업적 입지가 크게 바뀌었다. 90년 초만 해도 출판의 위상은 공고했다. 불과 5,6년새 디지털혁명이 이렇게 빠르게 진척될지 또한 전망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0년이라는 앞으로의 기간이 정해졌다. 지난 햇수의 두배에 달하는 변화를 읽어야 한다. 출판단지에서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은 완전히 새로운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슨 일을 일으켜야 할 것인가'를 새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우리가 그간 전혀 해보지 않았던 일이다.

출판은 물론 살아남는다. 디지털혁명이 확대될수록 세상의 자산은 창조적 상상력이 되고 있고, 이 창조적 상상력은 컴퓨터 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개인의 사고력에서 산출된다. 따라서 읽기는 앞으로 적어도 1세기 이상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 해도 출판의 자본이 고전적 읽기 출판물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다. 출판자본을 형성해 주었던 기능적 도서들, 즉 사전류나 참고서나 여타 오락적 도서들은 축소될 것이다. 이는 이미 전망이 아니라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

출판은 새 자본의 소재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멀티미디어적 기술은 출판을 흡수해갈 생각은 있어도 출판을 중심으로 출판에 협력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 이 정황에서 출판의 변함없는 가치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찾아내는 일이 새로운 도전의 과제이다.

이 점에서 나는 좀 억지를 부려 '출판문화박물관공원' 같은 것을, 단순한 사무실이나 작업장공간보다 먼저 짓는 것이 어떨까 하는 발상을 갖는다. '박물관공원'이라는 것도 현존하지 않는 조어(造語)인 셈인데, 이는 박물관으로도 안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다. 박물관은 이미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로 존재한다. 아무리 잘 지어도 놀랄만한 박물관이기는 어렵다. 그래서 소재는 박물관이지만 그 형상은 공원같은 마당이 되면 좀 다르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 인상을 심어줄지도 모른다.

여기에 간단없는 책 시장이벤트를 시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접근 방법들은 지금 사실상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벤트적 행사가 산업시대에서는 상당한 기업들의 전시적 효과 같은 것으로 있어 왔다. 그래서 돈의 여유가 있을 때만 해보는 시도라는 이미지가 있다. 하지만 오늘의 변화 속에 이벤트는 꼭 남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벤트에 투자를 하고, 그 이미지를 이용해 판매를 확장해 보자는 보다 창조적 생산의 방법이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주라기 공원' 장사에서 성공했던 것은, 세상 모두가 알고 있는 공룡 때문이 아니었다. 다 아는 공룡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새 캐릭터화하고, 이 디지털 프로그램에만 1천5백만달러를 지불했다는 이미지를 만든 것이 성공의 열쇠였다. "그게 뭔데 1천5백만달러짜리인가"하는 이미지를 팔았던 것이다. 물론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 디지털공룡을 산 것이다.

출판단지를 끝내 만들겠다는 꿈이라면 이제 출판은 그 꿈을 파는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은 출판이 아니라 출판 이미지이지만, 그러나 지금 출판을 살릴 길은 책 이전에 책이미지이다. 책의 위대함을 계속 강조하지 않는 한 책의 땅은 피할 수 없이 줄어갈 것이다. ❖

출판저널

통권 제199호/1996년 9월20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박남정 최성일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김지욱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댁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한국 시문화 회관 ■

문학에 소질이 있고 4년제 대학(어문계열 환영)을 졸업하신 아래와 같은 일에 관심이 많은분 3명을 모집합니다. (잡지 편집 경험자 환영)

- 월간지, 단행본 편집
- 문학행사 진행
- 어린이 청소년 문장지도,

제출서류 : 습작원고(있는분에 한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1통
(여 23-30세, 남 27-33세 미혼 남녀)
연락처: ☎764-6352, 766-4320, 765-7220

다국어맥편집서비스
일어/중국어/러시아어/영어/스페인어
지금까지 외국어 인쇄매체 때문에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협력업체가 필요하십니까?
저희 멀티피아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번역 및 사진식자,편집, 분해를 거쳐 난이도 높은 원색제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을 Mac Multil-Language One Step System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멀티피아와 파트너가 되어보십시오. 만나는 순간 결코 후회없는 결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옥편, 다국어사전, 한자관련서적 등 외국어 전문 맥편집 입력 서비스
번역 ➡ 교열 ➡ 감수 ➡ 편집 ➡ 교정 ➡ 인쇄
멀티피아 T. 267-5269 F. 278-6441
중구 인현2가 192-30 신성B/D 405

"최고가 아니면 포기하라"

선수기질이 있는
편집자와 디자이너를
모십니다

대우: 국내 최고의 대우
요건: 국내 최고의 실력
(potential, O.K.)
채용: 1)이력서
2)자기소개서
3)작품목록을 아래
사서함 「인사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0th Century Plus 20세기플러스 a publishing Co.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52-6호 2층
TEL (02)722-1273/4
FAX (02)738-8462
KPO BOX 1132, SEOUL, KOREA